

외래 전문용어의 번역에 대하여

Study on Translation of Foreign Technical Word

목 차

- 1. 새로 찾아내 쓴 용어들
- 2. 새로 만들어 쓴 용어들
- 3. 구분해서 쓴 용어들



韓鼎燮*
Han, Jeong Seob

나는 Kevin Lynch의 저서 “Site Planning”을 교재로 쓰기 위해 번역하면서,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다. 그런 용어들 중에는 원저에서 이탤릭체로 설명해 가면서 쓰고있는 새로운 개념의 용어들도 있었고,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우리말 번역어들 중에서 잘못 번역되었거나 적절치 못하게 번역돼, 원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번역어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한 번역어를 쓰기 위해, 우리말 사전, 영한사전, 영영사전 등을 뒤져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절한 우리말을 찾아보려

고 애썼으며, 그런 용어를 찾기 어려웠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또한 원저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용어들이 영한사전에서 같거나 비슷한 우리말로 번역돼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듯이 똑같은 번역어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그 뜻을 분명히 구분해 전달하기 위해 서로 다른 번역어를 찾아 쓰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상 설명한 내용에 따라 1. 새로 찾아내 쓴 용어들, 2. 새로 만들어 쓴 용어들, 3. 구분해 쓴 용어들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기로 하였다.

*도시계획기술사, 현대엔지니어링 Co. 토건사업본부 상임고문.

본고를 읽어 본 독자 중에서 이견이나 의견이 있는 분은 아낌없이 그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서로간의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 번역어들이 잘 다듬어질 수 있을 것이다.

1. 새로 찾아내 쓴 용어들

1) 경역(Site)

Lynch의 저서 “Site Planning”을 주종원 교수는 그 번역서에서 “團地計劃”이라고 번역하였으며, 일본의 佐佐木씨는 일본어 번역서에서 “敷地計画の技法”이라고 번역하였다. 다시 말해 site란 용어를 우리 나라에서는 “단지(團地)”라고, 일본에서는 “시끼찌(敷地)”라고 번역해 쓰고 있다.

그런데 “Site Planning” 본문에 나오는 많은 “site”란 용어들 중에는 “단지(團地)”로 번역해도 무방한 경우가 없지 않지만, 많은 경우 적절치 못하다. 일본식 용어 같은 “敷地”를 피해 “垆地”나 “用地”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도 적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site란 용어는 우리가 쓰는 “단지(團地)” “대지(垆地)” “용지(用地)”란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 모두를 포함한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위 세 가지 용어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필자가 알기로는 “단지(團地)”라는 용어가 처음 일본에서 쓰였으며, “住宅團地”로부터 시작해서 “工業團地” “産業團地” 등으로 확대돼 쓰이고 있다. 그것을 우리 나라에서 그대로 받아 들여 썼을 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관광단지”, 심지어 “밤나무 단지”, “은행나무 단지”란 말까지 만들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위를 생

각해 보면, 이 “團地”란 용어의 개념은 일정한 크기의 땅 위에 건물이나 시설물 또는 나무 같은 것이 있는 곳의 위치, 내용, 규모 등을 가리키고 있으며, “用地”란 용어의 개념은 어떤 목적을 위해 쓰이는 또는 쓰일 예정인 한정된 땅을 가리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면(地面) 뿐만 아니라 水面까지도 포함해 말한다. “대지”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들어설 예정의 땅을 가리킨다.

“Site”란 용어를 한가지 우리말로 번역해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겠지만, 앞에서 설명한대로 땅 자체뿐만 아니라 그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을 함께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을 갖는 우리말을 찾아내 쓰는 것이, 책제목 “Site Planning”의 번역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필요할 때가 많다. 그래서 필자가 고심 끝에 찾아낸 우리말이 “경역(境域)”이란 용어이다. “절의 경내(境內)”란 말은 흔히 쓰이는데, 이때 그 경역(境域)은 대웅전을 비롯해 그 부속 건물들이 있는 대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자연상태로 남아있는 임야 같은 땅도 포함한 절 소유지 전부를 가리킨다. 한글학회가 펴낸 “우리말 큰사전”을 찾아보면 “境域”을 “경계가 되는 구역”, “경계 안의 땅”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Kevin Lynch는 site plan의 대상이 소규모 주택군, 단일 건물과 그 대지, 또는 단일 사업으로 시행되는 작은 지역공동체(communitiy)같이 광범위한 것들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site planning”을 “경역계획(境域計畫)”으로 번역해 써 보니 낯설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쓸 만 하였다. 또한 “경역계획”이란 용어는 “국토계획”, “지방계획”, “광역계획”, “도시계획”, “지역계획”, “지구계획” 등 관련 계획 등과

의 위계상 구별에도 지장이 없다.

2) 방술(方術 : Art)

“Site Planning”의 제 1장 제목이 “The Art of Site Planning”이다. 이것을 주종원 교수는 그 번역서에서 “團地計劃의 技術”이라고 번역해 놓았고, 일본의 佐佐木 씨는 “敷地計畵の技法”이라고 번역해 놓았다. 그는 전술한 대로 책제목 “Site Planning”도 똑같이 “敷地計畵の技法”라고 번역해 놓았다.

그런데 이 제 1장 두 번째 문단 첫머리에 “Site planning is more than a practical art, however complex it’s technical apparatus”라는 문구가 나온다. 즉 “Site planning이 아무리 실용적인 technique들이 복합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용적인 art 이상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문구 중 technique를 우리들은 흔히 “기술” 또는 “기법”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art”마저 “기술”이라고 번역한다면 이 문구의 의미 파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art”를 “기술”이나 “기법”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우리 나라나 일본에서는 “art”란 용어를 흔히 “예술” 또는 “미술”로 번역해 쓴다. 그런데 영한 사전을 들춰보면 이밖에 “技術”, “技藝”, “技巧”, “숙련”, “솜씨”, “술책”, “수단” 등의 번역어들도 보인다. 따라서 “art”란 용어의 개념은 이런 모든 내용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藝術, 美術, 技術 등의 용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術”자가 “art”와 같은 개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術”자가 들어간 용어에는 藝術, 美術, 技術 이외에도 奇術, 魔術, 馬術, 武術, 劍術, 柔術, 擊術 등 무수히

많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어떤 분야에서 일반인들 보다 우수한 천부적(天賦的) 소질을 갖고 태어나, 그 소질을 닦아 얻은 뛰어난 재주를 서양 사람들은 “art”라고 불렀고, 중국 사람들은 “術”이라고 불렀다고 짐작한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물건 같은 것을 잘 만들거나 편리하게 만드는 재주를 技術이라고 불렀고,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음악을 잘 하는 등 아름다움이나 감미로움을 잘 만들어내는 재주를 藝術이라고 구분해서 쓴 것 같다. 이렇게 보면 계획하는 재주를 “계획술(計畵術)”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술한 제1장 두 번째 문단 첫머리 문구 “Site planning is more than a practical art, however complex it’s technical apparatus”에서 “practical art”를 “실용적인 術”이라거나 “실용술”이라고 번역하면 어색하다. 漢字用語는 보통 두 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art가 단독으로 쓰여질 때에는 “術”이라고 번역하기가 곤란하다. 漢文字典을 찾아보면 術, 技, 藝, 才, 巧 모두가 재주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글자 중 두 자를 조합해서 만든 기존의 藝術, 技術, 技藝, 技巧 등 이외의 두 자로 구성할 수 있는 용어를 만들어 보았으나 적당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사전을 뒤져 찾아낸 용어가 “方術”이다. 한글학회가 펴낸 “우리말 큰 사전”에는 方術을 “방법과 기술”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필자는 이 “方術”이란 용어를 “art”의 번역어로 쓰는 것이 괜찮겠다고 판단해 그렇게 쓰기로 하였다. “전술(戰術)”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다. 이 “전술”은 전쟁을 위한 “방술”임으로, 전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방술”이라고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물상(物像: Setting)

Lynch는 “Site Planning”에서 “setting”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를 단독으로 쓴 경우도 있지만, “physical setting”, “behavior setting” 등 합성어들로도 많이 쓰고 있다. 특히 “behavior setting”이란 것을 경역계획에서 중요한 계획요소 단위로 보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영사전이나 영한사전에서 “set”나 “setting”을 찾아보아도 Lynch가 설명하는 “setting”의 개념을 나타내는 마땅한 용어나 풀이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원서를 처음 읽었을 때, 그 개념을 파악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다. 처음에는 이 용어가 “physical environment”란 용어와 같은 개념을 갖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가 나오는 여러 부분을 여러 번 읽어본 끝에 그 개념이 “physical environment”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환경”이라고 번역해 쓰고 있는 “environment”란 용어는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전공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건축가들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물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며, 사회학자들의 경우에는 이 용어를 가정환경이나 사회환경을 말할 때 쓴다. 또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 용어를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근년에 이르러 건축가, 경역계획가, 도시계획가들이 “physical environment”란 말을 만들어 내 쓰게 된 것 같고, 이를 우리들은 “물적 환경” 또는 “물리적 환경”이라고 번역해 쓰고 있

다. 그런데 이 “물적 환경”은 글자 그대로 물적인 소재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개념은 산천 초목 등 자연소재들과 건축물, 공작물 등 인공 구조물 같은 움직이지 않는 소재들만을 가리키는 환경이다.

그런데 Lynch는 이런 “물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이 경역계획에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배경으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동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런 인간의 활동을 보다 편리하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 경역계획의 목적임으로, 그런 인간의 행동과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배경을 함께 묶은 것을 경역계획에서 한 계획단위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그런 것을 “behavior setting”이라고 부르고, 그 배경만을 가리켜 “setting”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setting에 대한 새로운 번역어를 찾아서 쓸 필요가 있다. 필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 본 결과 물상(物像)이란 용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냈다. 한글학회가 펴낸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물상”을 “① 눈에 보이는 물체의 생김새의 모양. ② 자연의 경치.”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물상”이 Lynch가 말하는 “setting”과 꼭 같은 개념을 가진 용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Lynch가 그랬듯이 새 개념을 더해서 “setting”의 번역어로 써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그렇게 쓰기로 하였다. 따라서 “behavior setting”은 “행동 물상”으로 번역해 썼다.

“behavior setting”이란 용어는 원래 사회학자인 Roger Barker가 제안한 것을 Lynch가 빌려, 그 개념을 설명하기를 “지속적인 행동 패턴

이 어떤 한정된 장소에서 규칙적인 시간간격으로 반복되며, —신문 판매대, 저녁때 구기경기, 주말 파티 때의 집 정면 베란다— 또한 거기서는 공간과 행동이 모두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behavior setting”을 site planing에서 계획 기본단위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야구경기 만을 하기 위한 운동장을 계획 할 때에는 야구경기를 위한 시설들과 그 관리시설 및 그 관리자, 거기서 경기를 하는 야구선수들과 감독, 코치, 보조원 등 야구경기 관련자들, 그 밖에 관객들 등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전용 야구장을 설계해야 한다. 반면에 학교 운동장과 같이 체육교육, 각종 운동경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입학식, 졸업식 등 학교 행사도 해야 하는 다용도의 공간을 계획할 경우에는, 그런 각종행사 개개의 behavior setting을 감안해서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단일 behavior setting을 위해 합리적이고 편리한 시설들과 공간들을 갖춘 경기장을 설계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어떤 behavior setting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지, 그 밖의 각종 behavior setting들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해서 시설들이나 공간들을 배치설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4) 에움길(Loop)

도시계획이나 경역계획에서는 “방사선 도로”나 “환상선 도로”라는 용어를 잘 쓴다. “환상선 도로”는 줄여서 “환상로”라고도 하는데, 이 용어는 주로 도시 외곽을 돌아가는 도로를 가리키며, 영어로는 “ring road”, 독일어로는 “ring

strasse”라고 한다. 또한 도시 기본 가로망 패턴의 하나인 “방사 순환” 패턴 속에 있는 여러 개의 “순환로”들도 “환상로”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경역계획에서는 도로 체계를 논할 때 “loop”란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 “loop”는 주택 단지에서 보행자들을 자동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막다른 골목” 가로 체계와 더불어 흔히 사용하는 “ㄷ”자형 고리모양 도로를 가리키며, “miner loop”라고도 한다. 또한 막다른 골목(cul-de-sac) 도로체계에서 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웃해 있는 두개의 막다른 골목 끝을 보행로, 상수도 관로(管路), 또는 비상용 응급차로 등으로 연결할 때, “loop”로 만든다고 한다.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loop를 “고리”, “환상선” 등으로 번역해 놓고 있다. 그렇다고 앞에서 언급한 “환상로”와 구별하기 위해 “loop”를 “고리 도로” 또는 “고리길”이라고 번역하면 어색하다. 그래서 필자는 다른 우리말을 찾아본 결과, 국어사전에서 “에움길”이라는 용어를 찾아냈다. 한글학회가 펴낸 “우리말 큰사전”을 보면 “에움길”을 “굽은 길”로 풀이하고 있으며, 동아출판사 간행 “새 국어사전”에서는 “굽은 길, 에워서 돌아가는 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loop”의 우리말 번역어를 “에움길”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그렇게 쓰기로 하였다.

2. 새로 만들어 쓴 용어들

1) 구성 단위(構成單位: Module)

건축계획이나 경역계획(site planning)에서 module 또는 modular coordination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module에 대한 마땅한

번역어를 찾지 못해, 흔히 그 영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 “모듈”이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modular coordination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그랬는지 모르지만 “척도조정(尺度調整)”이라고 엉뚱하게 번역해 쓴 바람에, 한동안 다른 사람들도 그런 용어를 비판 없이 그대로 사용해 왔다. 심지어 한국산업규격(K. S.)에서조차 그렇게 썼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용어를 별로 쓰지 않는다. 지금 한국산업규격(K. S.)에서는 module을 원어음대로 “모듈”이라 표기하고, coordination을 정합(整合)이라고 번역해 쓰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용어들을 원음에 가깝게 자기네 “가나” 문자로 표기해 쓰고 있다. 그만큼 이 용어들의 번역어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원래 외래어를 그들의 “가나” 문자로 표기해 쓰는 것을 좋아하는 일본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적절한 우리말 번역어를 찾아내 쓰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맞고, 우리말 순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산업규격(K. S.) 심의위원으로 일해 오면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심의위원들과 함께, 원음을 한글로 표기해 쓰고 있는 외래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고치고, 잘못된 번역어를 시정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척도조정”을 “모듈 정합(整合)”이라고 고치게 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단이다. 필자는 가능하면 이 “module”도 “모듈”로 쓰지 말고 우리말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번역어를 찾는데 도움이 될 “modular coordination”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대충 살펴보기로 하겠다.

불관서의 건축가 르 콜비제(Le Corbusier)는 일찍이 다가올 공업화 시대를 예견하고, 건축물

의 양산화(量産化), 공장생산화, 조립화 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구성재(構成材) 내지 부품들의 규격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규격화된 구성재나 부품들로 이루어지는 건축물들이 단조롭고 불품없게 되는 것을 막고, 건축가들이 창조력을 발휘하여 다양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신체구조에 바탕을 둔 어떤 합리적인 단위척도를 찾아내, 그것을 기본으로 다양하지만 한정된 일련의 수치들을 정해서 건축설계에 적용해 쓰고, 그런 치수들로 규격화된 건축물의 구성재나 부품들을 양산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제안을 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그 기본 단위인 “module”과 그 정합작업인 “modular coordination”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후에 국제표준화기구(I. S. O.)에서 100mm의 기본 모듈을 규정하게까지 되었다. 한국산업규격(K. S.)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 쓰고 있다., “건축 모듈 정합 원칙 및 기준(KS F 1503)”에서는 “모듈 정합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1) 건축 설계자, 건축 구성재 생산자와 공급자, 시공자 및 건축 행정 담당자간의 협조를 촉진시킨다.
- (2) 자유로운 설계 작업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고 표준화된 구성재로 건축할 수 있다.
- (3) 건축 구성재의 치수 종류를 단순화하고 적응성을 제고시킨다.
- (4) 표준화된 건축 구성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 (5) 건축 구성재의 재료, 형태, 또는 생산 방법에 있어 호환성을 확보하여 준다.

- (6) 건축 구성재의 합리적인 설계, 위치 설정 및 조립 등으로 현장 시공을 단순화시킨다.
- (7) 부품(설비품, 수납장, 조립식 붙박이장 등) 상호간에 치수 정합을 확보한다.

또한 동 기준에서는 기본 모듈 외에 증대 모듈, 보조 모듈 증분(增分) 값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증대 모듈은 기본 모듈의 정수 배로서 3M, 6M, 9M, 12M, 15M, 30M, 60M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대 모듈은 또 수평 계획 모듈과 수직 계획 모듈로 구분돼 있으며, 보조 모듈 증분 값은 M/2, M/4, M/5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건축에서 사용하는 모듈은 어디까지나 치수단위이다.

한편, site planning에서 많이 사용하는 “module”이란 용어의 개념은 건축에서와는 달리 치수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집단주택 개발에서 어떤 공동시설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가구규모(家口規模)나 공간규모, 또는 근접성 사교를 촉진시키기 위해 적당한 가구규모나 공간 규모, 또는 사회적 규범들에 따라 뚜렷한 단위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여겨지는 집체들의 집단 같은 단위를 “module”이라고 부르고, 이런 module이 같은 개발단지 내 또는 다른 곳에서 되풀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보며, site planning에서는 그런 module의 패턴에 관심을 갖는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건축에서 사용하는 “module”은 어디까지나 치수 단위인데 반해, 영역계획(site planning)에서 사용하는 “module”은 토지나 공간의 규모 또는 건축물들의 집단규모 등에 관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 두 경우 어떤 물적 구성체를 위한 단위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점을 갖는 번역어를 찾

아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생각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구성 단위”라는 용어가 “module”의 번역어로써 그런 대로 괜찮다는 결론을 내렸다.

2) 배치 설계(Layout)

건축이나 영역계획에서는 “layout”란 용어를 자주 쓴다. 이 용어에 대한 공인된 우리말 번역어는 아직 없고, 원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 쓰고 있다. 좋은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외래어를 번역해 쓰는 것이 국어 순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믿는 필자는 “layout”의 우리말 용어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나는 여러 가지 우리말을 비교해 본 결과, “배치 설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3) 구성 제원(構成諸元), 구성 인자(構成因子)(Dimension)

“Dimension”이란 용어 또한 건축이나 영역계획에서 자주 쓰이며, 기계공학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용어 역시 우리말 번역어가 없어, 영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 쓰고 있다. 그러나 “디멘션”이라는 용어가 한글 문장 중에 나올 때,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 개념을 전해 줄 수 있는 우리말 번역어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이 용어는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말 번역어를 하나의 용어로 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필자는 건축계획이나 영역계획에서 사

용하는 “dimension”을 경우에 따라서 “구성 제원(構成諸元)” 또는 구성 인자(構成因子)라고 번역해 쓰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3차원의 X, Y, Z 축의 길이를 가리키는 “dimension”인 경우에는 “구성 제원”이라고 번역하고, “environmental dimension”의 경우에는 “환경의 구성 인자”, 줄여서 “환경 인자”라고 번역해 쓰기로 하였다.

4) 관련도(Diagram)

Diagram이란 용어도 건축계획이나 경역계획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 용어 역시 영어 발음대로 “다이아그램”이라고 표기해 쓰고 있다. 이렇게 표기해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구태여 우리말을 만들어 쓸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필자는 “관련도”라는 우리말이 더 간편하고 우리 정서에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쓰고 있다.

5) 섞임새(Grain)

Lynch는 “Site Planning”에서 “grain”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가 사용하는 이 용어의 개념은 우리들이 흔히 번역해 쓰거나 영한사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곡물”, “난알”, 기타 용어들의 개념들과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영영사전에서도 그가 말하려는 뜻과 같은 풀이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는 grain을 어떤 물상(物像: setting)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혼합상태의 정도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유동 경로 상 흐름의 특성화 정도와 이 특성화된 유형들이 섞여 있는 상태의 고른 정도(fineness)를 grain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용어를 주종원 교수는 그 번역서에서 “입도

(粒度)”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입도”라는 것은 자갈이나 모래 등의 알맹이 크기를 구별하기 위한 단위이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어라고 보기 힘들다. “혼합도” 또는 “혼성도”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지 모른다. 다만 Lynch가 새로운 개념으로 “grain”이란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용어를 피해, 새로운 우리말을 찾아보려고 애쓴 끝에, “섞임새”란 새로운 순수한 우리말을 만들어 써 보았더니 학생들의 이해와 반응도 괜찮아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6) 허슨한(Loose)

“Loose”란 형용사는 흔히 “느슨한”으로 번역해 쓴다.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그 밖에도 “늘어진”, “흐트러진”, “헐렁한”, “헐렁헐렁한”, “흔들 흔들하는” 등 많은 번역어들이 나열돼 있다. 그런데 경역계획(site planning)에서 쓰이는 “loose”를 이런 용어로 번역해서는 원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개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느슨하다”라는 우리말은 실같은 것을 팽팽히 당기지 않고 가운데가 약간 처지게 잡았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또한 “헐렁하다”는 우리말은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입었을 때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한편 경역계획에서 사용하는 “loose”란 형용사는 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물상(物像: setting)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혼성(混成) 상태를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주택단지에서 각 집채들이 뻥뻥이 밀도 높게 배치되어 있지 않고, 각 집채 간격이 넉넉하여 그 배치 밀도가 높지 않은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흙 속에 모래알 같은 큰 입자들이 많이 섞여

있어 투수성(透水性)이 좋은 흙을 loose한 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는 우리말을 찾아내 쓸 필요성이 있다. 필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말 사전을 뒤져 적절한 용어를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용어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한자의 “소(疎)” 자가 그런 의미를 갖지만, 그렇다고 “소한”이란 형용사는 쓰기가 어색하고, “낮은 밑도의”로 하면 길고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치 않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 고심 끝에 “허순한”이란 형용사를 만들어 보았다. 이 용어는 “허술한” 또는 “허렁한”의 첫자 “허”와 “느순한”의 “순한”을 합성한 용어이다. 이 용어를 써 보았더니 학생들의 이해도와 반응이 괜찮았다.

7) 개방 공간(Open space)

“Open space”라는 단어도 도시계획이나 경역계획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이 역시 원음대로 “오픈스페이스”라고 한글로 표기해 쓰고 있다. 그러나 그 성격을 나타내는 “openness”는 “개방성”이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필자는 “open space”를 “개방 공간”으로 번역해 쓰는 것이, 무분별하게 외래어 원음을 한글로 표기해 쓰는 것보다 국민정서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오래 전 일본의 히가사(日笠 端) 교수의 저서 “도시계획(都市計 画)”을 번역할 때부터 그렇게 쓰고 있다. 건축계획에서 “외부 공간”이란 용어를 쓰는데, 이 개념은 주로 주택의 실내공간인 내부공간과 대위(代位)되는 마당 공간 등을 나타내는 용어이기 때문에, 도로, 공원, 녹지 등 광범위한 외부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인 “개방 공간”과는 구별된다.

8) 연속 경관(Sequence)

“Sequence” 역시 경역계획에서 잘 쓰이는 용어로서, 보통 원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 쓰고 있다. 이 역시 우리글에서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필자는 이 용어의 우리말 번역어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끝에 “연속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쓰기로 하였다.

9) 수직 공간(Clearance)

육교나 철도교 구조물들의 최하 부위에서부터 도로면 또는 수면까지의 높이를 “clearance” 또는 “vertical clearance”라고 한다. 건설연구사 발행 “최신 건설용어사전(94년도 판)”을 보면, “clearance”를 “다리밑 공간, 행하공간(桁下空間)”이라고 번역해 놓았다. 한편 영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 놓은 “클리어런스”에 대해서는 “틈”, “여유”로 번역해 놓았다.

그러나 “다리밑 공간”이나 “행하 공간”이란 용어는 보편화되지 못해 쓰는 이가 많지 않고, “건축 한계”란 용어를 쓰는 이도 있으며, 주로 “크리어런스”라고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건축에서는 “틈” 또는 “여유 공간”의 뜻으로 “크리어런스”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간”이란 3차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수직 높이를 “다리밑 공간”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한편 건축에서 사용하는 “크리어런스”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수직, 수평 관계없이 어떤 구성요소 간의 간격이나 틈새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필자는 “clearance”란 용어를 사용하는 여러 분야에서, 적어도 토목, 건축에서 만이라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말 번역어를 새로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필자는 “clearance”를 “사이 공간”이라고 하고, 이를 수직과 수평으로 나누어, 다리 밑의 높이에 대해서는 “수직 공간”, 기타 수평적인 여유공간을 “수평 공간”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짓고 그렇게 쓰기로 하였다.

10) 전면폭과 깊이(Frontage and Depth)

건축 대지(垆地)는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한다. 이 전면도로와 대지가 접한 길이를 “front length” 또는 “frontage”라고 하고, 이와 어떤 각을 이루면서 인접 대지와 접한 경계선의 길이를 “depth”라고 한다. 대지 세분할(subdivision) 법이 있어, 지구별 대지 최소면적을 위시하여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한 전면도로에 접해 있는 표준적인 직사각형 “대지” 이외에, 두 개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 부정형(不整形) 대지 등에 대해서도 “frontage”와 “depth”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대지 세분할 법이 없고, 계획적 시가지 조성의 역사가 짧은 우리 나라에는 이런 개념의 용어들이 원래 없었고, 지금도 공식화된 용어가 없다. 우리보다 앞서 개화한 일본에서는 “frontage”를 마구찌(まぐち: 間口)라 하고, “depth”를 “오꾸유키(おくゆき: 奥行)”라고 한다. “間口”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본에서 토지를 쟈 때 겐(けん: 間)을 기본단위로 하기 때문이고, “奥行”은 직역하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런 일본말의 어원을 몰랐던지 “frontage”를 “중간입구(中間入口)”라고 창작 번역해 놓은 것을 보고 실소(失笑)했던 기억이 난다.

필자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frontage”를 대지의 “전면폭”, “depth”를 대지의

“깊이”라고 번역해 쓰기로 하였다. 우리말로 “깊이”라고 하면, 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깊이”라고 하면 “depth”를 너무 직역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수평으로 뚫린 동굴에서 “깊이 들어간다” 할 때의 “깊이”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의 깊이를 가리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11) 물 구성체(構成體)(Water Body)

Lynch는 “Site Planning”에서 “water body”라는 용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다. 그 개념은 바다, 강, 냇물, 늪, 저수지, 연못 등 온갖 물로 이루어지는 물상(物像)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원음을 한글로 표기해 쓰기도 어색하다. 그래서 알맞은 우리말을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물 구성체”라는 새 용어를 만들어 써 보았더니 그런 대로 쓸 만 하다고 판단되 그렇게 쓰기로 하였다.

12) 길썸(Shoulder)

도로의 주행선 밖 가장자리 부분을 “shoulder”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보다 먼저 개화된 일본에서는 “로켄(るけん: 路肩)”이라고 번역해 쓰고, 중국에서도 같은 한자(漢字) 용어를 쓰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개화과정을 밟은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많은 기술 전문용어들과 함께 이 “노견”이란 용어가 얼마 전 까지 토목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우리 나라에 고속도로가 건설된 후, 차량 수가 급증하면서 주행선 상의 차들이 밀리게 되자, 주행이 금지된 “노견” 위로 불법 주행하는 차들이 생겨나면서, 각종 언론에 이 “노견”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일반인의 입에도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

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이 “노견”이라는 말의 뜻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발음이 어색해 다른 말로 고쳐 써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갓길”이란 새 말을 만들어 보급시켜 지금 널리 쓰이고 있다. “갓길”이란 새 용어를 정할 때, 당시 문교부장관이던 이어령 교수는 “길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는 신문보도를 본 기억이 난다. 평소 “노견”이라는 말을 마땅치 않게 생각해 오던 필자는 정부에서 “갓길”이란 용어를 정하기 이전에, “Site Planning”의 번역서에서 “노견” 대신에 “길섭”이란 용어를 썼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의 의견대로 “길섭”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갓길”로 결정돼 버렸다. 필자는 지금도 “길섭”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shoulder”는 주행선의 안전 운행과 보전을 보장하고, 주행 중 고장난 차들이 임시로 서거나, 운전 중 피로나 졸음을 느끼는 운전자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으로써, 일반차량의 주행이 금지된 여유 공간이다. 그러니 독립된 길을 연상케 하는 “갓길”이란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 두 번째로 도로공학에서 쓰는 “shoulder”의 개념 속에는 주차 선과 동일 노면의 평탄부 뿐만 아니라, 도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성토(盛土) 및 절토(切土)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13) 주차 자리(Stall)

야외 주차장이든 실내 주차장이든 많은 차들이 주차해야 하는 곳에서는 주차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차해 놓을 수 있는 자리를 흰줄로 표시해 놓는다. 이런 자리를 영어로 stall이라고 한

다. 승용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진지 얼마 안돼는 우리 나라에는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아직 없다. 필자는 이에 해당하는 우리말의 필요성을 느껴 “주차 자리”라는 새 용어를 만들어 썼다.

14) 주차 헛간(Carport)

여러 형식의 주차 시설이 있다. 그 중에는 건축물의 벽에 잇대거나 따로 띄어서, 기둥들만 세워 지붕을 씌운 간이 주차 시설이 있다. 이런 주차 시설을 “carport”라고 한다. 이런 시설은 주로 단독주택에 설치되지만, 간혹 여러 주호(住戶)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주차장, 또는 관공서 마당 한 구석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우리 용어가 아직 없어, 필자는 “주차 헛간”이란 새 용어를 만들어 썼다.

15) 투수성 맨홀(Recharge Manhole)

우수하수(雨水下水) 체계에서 사용되는 맨홀은 일반적으로 하수관 청소장비를 사용하기 쉽게, 또는 하수관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하여, 땅속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원형 또는 사각형 콘크리트 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맨홀은 하수노선이 꺾이는 곳, 또는 직선노선이라도 연장이 긴 경우 100~150m 마다에 설치된다. 보통 맨홀은 우수를 그냥 관에서 관으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수를 땅으로 되돌리기 위해 측면에 작은 구멍들을 뚫어 놓고, 안에 자갈을 채워 넣는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맨홀을 “recharge manhole”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맨홀을 별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촌 부락이나 행락지(行樂地) 같은데서 경제적인 하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런 맨홀을 제작

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용어의 우리말 번역어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투수성(透水性) 맨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번역해 썼다.

16) 옥외 물 변소(Aqua Privy)

우수나 오수의 하수시설이 전혀 없는 농촌지역이나 또는 저개발국의 판자촌 등에서는 옥외에 간이 변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 퍼낼 수 있는 구덩이 변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파리들과 냄새를 막을 수 있는 좀더 위생적이면서, 정화조 설치 수세식 변소보다는 경제적인 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변소를 “aqua privy”라고 한다. 그 구조는 수세식 변기를 설치한 변소 바닥 바로 밑에, 정화조 대신에 물을 채운 방수 탱크를 설치하고, 넘치는 오수를 받는 오수관을 연결시킨다. 찌꺼기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더깁이(뜨는 찌꺼기)는 뜬다. 찌꺼기는 몇 년에 한 번씩 펌프로 건어 내거나 용기로 퍼낸다. 한편 더깁이가 오수관 속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조절판을 설치한다. 또한 냄새를 막기 위해 오수관과 변소 유입관을 오물 속에 집어넣고, 탱크 내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시키기 위한 배기관도 설치한다. 이런 “aqua privy”의 우리말 용어를 필자는 “옥외 물 변소”라로 번역해 썼다.

17) 침투 구덩이(Soakp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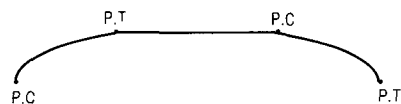
옥외 물 변소에서 유출되는 오수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허드레 물 등을 받아 땅 속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파 놓는 구덩이를 “soakpit”라고 한다. 이 용어를 필자는 “침투 구덩이”라고 번역해 썼다.

18) 방수(放水) 처리장(Drain Field)

구미 선진국에서 오수하수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우수하수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은 농촌지역에서나, 저밀도 개발지역에서, 흙의 투수성(透水性)이 좋고 지하수면이 낮은 경우에, 수세식 변소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땅 속으로 침투시킬 수 있게, 작은 구멍들이 뚫린 파이프를 땅 속에 매설한다. 이 구멍 뚫린 파이프의 길이는 그 곳 흙의 투수계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장치를 “drain field”라고 한다. 필자는 이 용어를 “방수(放水) 처리장”이라고 번역해 썼다.

19) 등 눌린 커브(Broken-back Curve)

도로 수평노선이나 수직노선을 설정할 때 그 중심선은 원 둘레 곡선과 그 접선인 직선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곡선의 반경과 접선의 길이, 그리고 그것들의 조합으로 무수한 노선형태가 나타난다. 이런 형태들 중에는 피해야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broken-back curve”이다. 이 커브는 길이 60m 미만의 접선과 그 양끝에서 같은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두 개의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노선형태이다. 이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어 필자는 “등 눌린 커브”라는 새 용어를 만들어 썼다. (그림 참조)



20) 토론식 작업(Charrette, Charette)

“Site Planing”에는 “charrette” 또는 “charette”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온다. 이 용어는 각종 건축설계 경선(競選) 방법을 설명하는 중에서, 그리고 또한 경역계획에 앞서, 가능한 해

결안을 찾아내는 수단으로, 행동자들과 그들의 기대를 알아내기 위해, 중요한 행동자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그들의 희망, 갈등, 속박, 및 정보단절 등을 밝혀내는 일종의 조사방법을 설명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용어는 비교적 근래에 쓰이게 된 것으로, 웬만한 영영사전이나 영한사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최근에 교학사(敎學社)에서 발행한, 새 용어들을 많이 신고 있다는 “신 영한대사전”을 보면, “charrette”를 “각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논하는 그룹 토론회”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Random House 사가 발행한 “Random House Dictionary”에서는 그 의미를 “Final, intensive effort, to finish a project, esp. an architectural design project, before a deadline.”이라고 해설해 놓고 있고, 이 사전을 국내에서 발행한바 있는 “시사영어사”에서 따로 펴낸 “영한대사전”에서는 “(특히 건축설계도의 과제 완성을 위하여 마감을 앞두고 행하는) 최종적인 집중노력 (토론회 따위)”라고 풀이하고 있다. 필자가 “Site planning”을 번역할 당시에는 상기한 사전들이 국내에서 출간되기 전이어서, “Webster’s English-Korean Dictionary”와 일본의 “사회과학대사전”의 해설, 그리고 전술한 “Site Planning” 속의 기술(記述) 내용을 참고로, “charrette”를 “토론식 작업”이라고 번역해 썼다.

3. 구분해서 쓴 용어들

1) 높이(Height)와 수준 높이(Elevation)

일반적으로 “height”와 “elevation” 두 가지 용어를 똑 같이 “높이”라고 번역해 쓰고 있다. 영한사전들을 찾아보면, “height”를 높음, 높이,

해발, 표고, 높은 곳, 고지 등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elevation”에 대해서도 높이, 고도, 해발(→height); 높은 곳, 고지(height)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두 용어의 번역어 간에는 별 차이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지만 경역계획이나 건축계획 등의 영어 원서에서는 이들 두 용어를 구분해 쓰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높이 또는 언덕이나 산봉우리의 높이를 말할 때는 “height”란 용어를 쓰고, 건물의 바닥 높이 또는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땅 수평면(ground level) 등을 가리킬 때에는 “elev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전자들을 “spot height”라 하고, 후자들을 “spot elevation”이라고 부른다. 이 “spot elevation”은 지형(地形)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중요한 입력자료로 쓰인다. 이처럼 “height”는 한 지점의 높이를 말할 때, “elevation”은 일정한 수평면(level)의 높이를 말할 때 쓰인다. “ground elevation”, “floor elevation” 등을 각각 “지반 높이”, “바닥 높이”로 번역해 써도 큰 불편은 없다. 그러나 “vertical elevation”을 “수직 높이”로 번역했을 때에는 “vertical clearance”의 번역어와 혼동되기 쉬워 개념 전달이 잘 안될 수 있다. 그래서 개념이 다른 이 두 가지 용어에 해당하는 우리말도 서로 다르게 번역해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끝에 “height”를 그냥 “높이”로 “elevation”을 “수준 높이”로 번역해 썼다.

2) 기본형(prototype)과 원형(archetype)

도로의 표준 단면도, 아파트먼트의 단위 주호

(住戶) 표준 평면도, 또는 주택군(住宅群)의 구성단위(module) 패턴 등, 다양한 장소에서 되풀이돼 사용되는 실증적(實證的) 설계나 체계를 “prototype”라고 한다. 이런 것들 중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것을 stereotype라고 한다. 한편 Lynch는 활동물상들(activity settings)을 분석하여 그 관련을 밝혀내는 방법들에 대해 기술하면서, 그 중 한 가지를 설명할 때 “archetype”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각종 행동물상(behavior setting)들의 가장 중요한 결합들(linkages)을 알아내기 위한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상례적인 패턴들인, 환형(the ring), 일 점 중심형(the peak), 별형(the star), 위계형(hierarchy), 축형(the axis), 선형(the line), 별자리형(constellation), 그물형(the network), 체커판형(the checkerboard), 속 빈 네모형(the hollow square), 적층형(the layering) 등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prototype”와 “archetype”를 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두 용어를 일반적으로 똑 같이 “원형”으로 번역해 쓴다. 영한사전들을 찾아보면, “prototype”에 대해서는 원형(archetype), 기본형, 모범(mode) 등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archetype”에 대해서는 원형(原型: prototype), 전형(典型)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두 용어를 거이 같은 개념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경역계획에서 이 두 용어를 각각 다르게 번역해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심 끝에 “prototype”를 “기본형”으로 “archetype”를 “원형(原形)”으로 번역해 쓰고, “stereotype”를 “관례형”으로 번역해 썼다.

추기(追記)

요즈음 “계획”의 한자 표기를 거이 다 “計劃”으로 쓴다. 그러나 여기 劃자는 畫劃자를 써야 맞다. 字典을 찾아보면, 劃자는 가를(以刀破物) 획, 쪼갬(割) 획, 구별할(區限) 획 등으로 풀이하고 있고, 畫자는 그림(繪) 화, 그을(界) 획, 나눌(分) 획, 획(書) 획, 피할(計) 획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劃자와 畫자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글자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토지구획”은 “土地區劃”으로, “도시계획”은 “都市計畫”으로 구별해 썼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두 경우 모두 劃자로 쓰게돼 버렸다. 漢字의 宗主國 중국과 漢字를 많이 쓰는 일본에서는 한자의 획을 줄인 略字를 많이 쓰는 추세인데, 우리가 구태여 획 수가 많고, 의미도 틀리는 칼 刀자가 붙은 글자를 써서 計劃이라고 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필자는 “Site Planning”의 번역서에서 한글을 주로 썼으면서도, Site의 생소한 번역어 “경역”의 이해를 돕고, 劃자도 바로잡기 위해, 그 표지에 책 제목을 “경역계획”과 함께 “境域計畫”이란 한자어도 병기했다. 참고로 畫자는 劃자의 俗字이고, 畵자는 畫자의 略字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다른 이가 이미 잘못 쓴 책 제목 같은 것을 인용할 때에는 그대로 “計劃”이라고 썼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計畫”이라고 썼다. 또한 일본에서는 劃자와 畫자 두 자를 함께 畫의 略字인 畵자로 통일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 책에서 인용할 때에는 우리 컴퓨터에 입력돼 있지 않는 畵를 복사해 사용하였다.

(원고 접수일 1997. 9. 3)